

몰래 농사 지었던 초지, 원상 복구해야

제주시 지역서 2017~2019년 초지 460여ha 불법전용 개정 초지법 11일 시행... 5년내 2차전용 승인도 필수

월동무 등의 재배를 위해 불법 개간하며 점차 사라지는 제주 초지에 대한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약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초지법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초지법은 초지전용을 하지 않고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복

구 명령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또 초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가 초지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은 전국에서 초지 면적이 가장 넓은데 초지에서의 월동작물 재배나 태양광발전 등의 난개발로 해마다 초지가 잠식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지역 초지

는 8758.9ha로 제주도 전체 초지(1만 5873.7ha)의 55.1%, 전국 초지(3만 2788ha)의 26.7%를 차지한다. 또 최근 3년(2017~2019년)간 월동무와 콩 등 밭작물 재배 등으로 불법전용된 초지는 759필지, 461.8ha에 이른다.

초지 잠식이 끊임없이 이뤄져온 이유는 불법 경작행위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아도 재배한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크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현행법상 초지로 다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밭작물을 계속 재배하며 월동무 등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며 농지에서 월동무를 재배하는

경증농가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도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 개간된 초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초지에 불법으로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초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편법적인 개발 사업 차단을 위해 체계적인 초지의 보호·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사업 신청, 온라인으로 한번에

도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중장년취업지원 등 6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구축,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은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6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창구다. 회원가입과 기업 등록을 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한 사업의 업무진행 상황(신청→접수→검토→지원 대상→지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소통지원(설문조사, 묻고 답하기) 메뉴를 개설해 사업의 만족도 확인 등 양 방향 모니터링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한 사업의 업무진행 상황(신청→접수→검토→지원 대상→지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소통지원(설문조사, 묻고 답하기) 메뉴를 개설해 사업의 만족도 확인 등 양 방향 모니터링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제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를 대상으로 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170개소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행위와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0만~300만원) 부과나 행정처분한다. 무등록 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양파 수확 '분주' 지난 6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각급 학교의 개학을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학교·학원가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건강·안전한 식품 생산·유통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276곳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지도 점검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 판매 여부, 시설 및 종사자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살핀다. 제과·제빵류 프랜차이즈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 지정을 위한 사전 평가도 병행한다.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걱정 덜까

구좌읍 하도·덕천리 등 배수개선사업지구 선정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반복돼 온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덕천리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돼 물난리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하도·덕천지구 2개 지구가 신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도지구에 120억9400만원, 덕천지구에 80억2500만원 등 총 201억1900만원의 국비가 투입돼 158ha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기본계획이 완료된 하도·덕천지구에 대해 국비 절충을 강화해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지구에는 배수로 2.1km와 저류지 3개소, 덕천지구에는 배수로 4.17km와 저류지 4개소가 시설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37억원을 투입해 산양·동북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송당, 세화, 평대, 한동, 김녕, 함덕, 봉성, 하가, 상명, 금약지구 등 10개지구를 신규 대상 사업지구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영락·한남 등 2개 지구에서도 2023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사업 투입 예산 226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대정읍 영락지구에는 모두 114억원이 투입되며, 72ha가 배수개선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읍 한남지구에는 사업비 112억원이 투입되며, 수혜면적은 74ha로 추산된다.

한림1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지로

4억 들여 커뮤니티 공간 등

제주시 한림읍 한림1리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한 한림1리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한 세대공감 활성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지은지 30년 된 한림1리 부녀회관이 노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마을부녀회에서 제안하고 제주시와 도시재생센터가 함께 협력해 사업 발굴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공모로 선정됐다.

앞으로 한림1리에서는 총 사업비 4억원(국·도비 각 2억원)을 투입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커뮤니티 공간은 1층(132㎡)에 공동부엌·다목적공간·마을 카페가 조성되고, 2층(60㎡)에는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아이돌봄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농산물·수산물을 활용한 향토 요리프로그램 운영, 지역 어르신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 한림1리 마을자살 발굴 프로그램 운영, 마을이 함께하는 아이 돌보미 등 3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공동체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들이 사업참여 경험을 축적해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초식가축 조사료 제조 지원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초식가축의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에 모두 17억여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일리지 조사료란 소·말 등 초식가축의 먹이로 이용되는 것으로, 수분량이 많은 목초·야초·사료작물 등을 3~4일간 말려 원형의 비닐로 포장 후 진공으로 저장·발효하는 조사료를 말한다. 올해엔 서귀포지역 100

여 농가에서 모두 2만8000여t의 사일리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에서 사일리지 생산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생산량을 확인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최종 무게를 측정, 1t당 6만원의 제조비를 지원하게 된다.

서귀포지역에서는 2019년 말 기준 소·말 등 초식가축 2만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81농가에서 모두 2만여t의 사일리지 생산됐다. 사일리지 제조에는 12억 여원이 보조금이 지원됐다.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크리스탈 커넥션 네트워크 솔루션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임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